

# 이 넓은 우주에서 숨 쉬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 대흥사 조실 천운 스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무어열반을 아난존자가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자. 땅이 크게 진동하며 천둥이 울렸다. 사라스수에 때 아닌 꽃이 만개하고, 하늘의 만다라화가 여래를 공양하기 위해 허공에서 비 오듯 쏟아져 내렸다. 만월의 달빛이 환히 내리비치는 한 밤중에 만다라화가 춤추듯 허공에서 하늘거리며 내려온 그 날의 정경을 광주 향림사의 와불(臥佛)은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천의에 내려앉은 꽃잎들, 반개하신 눈 아래 적정(寂靜)의 안온한 미소를 띤 열반상 앞에 서니 부처님께서 이천오백 년 전에 열반하신 것이 아니라 범공 전에 열반에 드신 것처럼 아련한 그리움과 슬픔이 밀려왔다.

천운 스님께서는 작년에 부처님의 열반상을 모시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스님의 원력으로 불사는 원만히 진행됐다고 올 유월애 와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고 염불하니 건강이 허락할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이 수행정진하고 있으니 이 또한 기쁜 일이라면서 환하게 웃었다.

스님이 열넷 살 때, 속가 아버지는 혁명 스님을 받들어 수행했는데, 그때부터 아버지의 유훈을 받들어 <금강경>을 열심히 독송했다. 그런 인연으로 <금강경> 독송을 평생의 수행으로 삼게 됐으며, 20세 전에 <금강경>을 다 암송할 수 있었다. <금강경>과의 특별한 인연은 월정사에서 지암 스님을 만나면서 더 두텁게 이뤄졌다.

“<금강경>은 대승시교이기에 참으로 중요하며,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수승한 경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존자에게 ‘<금강경>을 수지독송(受持讀誦)하면 성불한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금강경>은 공(空)의 원리와 실천을 가르치고 있는 경이지요. 그리고 번뇌를 떨쳐버린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가를 설하고 있

## 상구보리 하화중생 실천 ‘고아들의 대부’로 불려 한영·지암·서옹 스님 은혜 평생 잊어본 적 없어

“열반에는 유어열반과 무어열반이 있어요. 유어(有餘)열반은 탐욕이나 어리석음 등과 같은 모든 번뇌망상이 제거될 때 증득하게 되는 열반인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증득하셨을 때 도달하신 열반을 가리키지요. 세존께서는 입멸(入滅)하실 때 육신과 정신적인 작용이 완전히 해소됐으므로 무어(無餘)열반에 드신 것입니다. 초기 경전에서는 탐진치(貪瞋癡)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열반이라 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은 ‘열반은 죽고 나서 증득하게 되는 어떤 경지’로 오해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지요. 열반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바로 지금 여기 현재의 삶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열반은 죽어서 증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실현해야 한다는 말씀 참으로 존귀하다. 스님은 이어서 ‘탐진치 삼독이 소멸돼서 항상 자비희사가 넘쳐흐르고 지혜가 충만한 가운데 환희로운 삶을 영위하면서 중생들을 전리의 길로 인도하는 삶이 바로 열반의 참모습’임을 강조했다.

올해 세수 팔십이신 천운 스님은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다고 했지만, 눈빛은 새벽별처럼 빛났다. 스님의 건강을 걱정했더니 “부처님께서도 일대사(인연)로 오셔서 가고 생로병사를 다 보여주고 가셨다”라고 짧게 한마디 했다. 스님은 평생 동안 해 오신 그대로 새벽 4시엔 일어나 예를 올리고, 두 시간 동안 참선하고 염불하신다. 요즘을 일과가 하루 종일 참선하

는 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사인 지암 스님은 하루에 <금강경>을 네 번씩 독송하셨는데, 외출하실 때에도 경을 보자기에 싸서 품에 지니고 다니실 정도였다. 버스나 기차 속에서 또는 길을 가는 도중에도 시간에 맞춰 독송하셨다. 향림사의 가풍은 참선과 <금강경> 독송인데, 지암 스님의 수행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지암 스님께서 실천해 보으신 그 진지함과 엄숙함은 그 자체로 신앙이요, 수행이었다”고 덧붙였다. 천운 스님은 평생의 <금강경> 독송을 회향하는 의미로 최근에 <금강반야바라밀다경> 강설을 세상에 내놓았다. 논리적이며 선적(禪的) 지혜가 번득일 뿐 아니라, 여러 경전과 불교 전반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지혜를 담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는 책이다. 스님의 평생의 수행도 엿볼 수 있다.

천운 스님께서 <금강경> 32분(三十二分)중 가장 귀하게 새기는 것은 제5분(五分)에 나오는 사구계(四句偈)이다.

범소유상 개시허망(凡所有相皆是虛妄)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若見諸相非相即見如來) 무릇 존재하는 바의 모든 형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측면에서 보면 곧 여래를 보리라.



“부처님께서 32대인상(三十二大人相)을 구족하셨다는 사실에 당시의 불교도들은 지나치게 감동하고 있었으므로 부처님께서 어리석은 중생들이 32인상에 현혹돼 법신분의 참모습을 깨닫지 못할 것을 크게 염려하신 것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32상은 수행의 결실로 얻어진 육신의 한 모습일 텐데, 그것으로 여래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는 없음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32상을 구족한 것으로

여래를 본다면 이는 다 허망한 것이지만, 32상을 구족하지 아니한 면에서 본다면 이는 허망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상(相)이란 것은 기만(欺騙)적인 것이니 상 아닌 것으로 보아야 진실한 절대(絕對)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천운 스님은 출가수행자로서 불조의 뜻을 받들어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그대로 실천해 오신 분이다. 안으로 끊임없는 정진을, 밖으로는 복지 원력을 세

워 섬 없는 보살행을 실천하고 계시기에 참으로 들고 싶은 이야기도 많다. 광주 향림사를 중심으로 해 사회복지 법인 향림원을 설립해 어린이집, 유치원, 불교대학,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신용협동조합, 출판사 등 10여 개의 복지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스님은 200명이 넘는 아이들을 키워 사회로 배출한 보살의 삶을 살아오셨기에 수행승이란 이름 위에 ‘고아들의 대부’라는 이름 하나를 더 얻게 됐다. 한국전쟁으로 많은 고아들이 생겨났으며, 타종교 시설을 통해 외국으로 입양돼 가는 아이들이 참으로 많았다. 그것이 가슴 아파 하나, 돌 돌보기 시작한 것으로 스님의 손을 거쳐 간 아이는 200명이 넘는다. 그중 출가해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이십여 명이 이른다.

“우리 아이들의 하루는 다섯 시 아침 예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예외이고요. 예불 후 아침 공양 전에 한문 열 자씩을 가르치고 나서, 아침 공양 후에 책가방을 챙겨서 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 내가 몸소 승차권을 나누어 주면서 ‘차 조심, 오락실 조심, 공부 잘 하라’고 일일이 당부했어.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일 반복되는 이런 일들을 보고 나의 도반이나 신도들은 참으로 어지간하다고 했지만, 아이들에게 사랑을 심어주는 나만의 사랑법이지요. 내가 그 아이들에게 줘야 할 것은 육체의 성장과 함께 정신적인 자양분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즈음도 향림사에 맡겨지는 아이들이 끊이지 않는다면 “완전한 고아는 없고 문제 있는 부모에 의해 방기돼 만들어진 고아들이 대부분”이라면서 인륜마저 함부로 끊어버리는 몰인정한 사회문제를 꼬집었다.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의 문제는 결코 나와 그 아이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지혜롭지 못하고 나쁜 습관을 익혀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기에 일어나는 모두가 짓고 모두가 받는 공업(共業)입니다. 우리 모두가 청정심을 회복해 모든 인류를 내 몸처럼 생각하는 동체대미정신을 익혀야 합니다.”

스님은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연기법은 만고불변의 진리이기에 남의 이름은 곧 나의 이름이 되고, 남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된다’고 했다.

아이들에 대한 스님의 교육열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스스로가 도망가지만 않는다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공부를 시켜줬다. 박사과 되고 싶은 사람은 박사과정까지 마치게 해줬고, 유학을 원하면 유학도 보내줬다. 사회 곳곳에서 교사, 의사, 사업가 등 제 몫을 다하고 있다면 “박사도 여럿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다.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서 보훈보살이 현현하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 많은 아이들의 학비를 조달하려면 참으로 힘들었을 것 같다고 했더니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냥 저절로 다 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

##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 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실물크기(소) 3.5 × 5cm (중) 5 × 7cm**

**복상불소영장량장가천의식식사용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 108염주, 단주 흑단목염주 / 흑단목염주  
크기 : 8mm × 10mm × 12mm 55,000원  
10mm × 10mm × 12mm 65,000원  
12mm × 10mm × 12mm 85,000원  
흑단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대) 26 × 16 × 16cm 120,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원을 마음대로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명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김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들 온열복대**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들 온열복대

복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복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들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차로 **금강약들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들 육각별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좌옹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도 작용하고 편안하게 알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 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 관절염,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 차가움 ●오심, 구역, 소화불량,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에게는 3-4일 먼저 선체현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들이님께서 체질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리에 차가운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하리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속품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가능한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품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총대 및 뜨거운 물이 들어가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들 온열복대**는 속품(최고 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백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가능한 최고인 **금강약들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양과 질병들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정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리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김환영 / 일일공회도 상명 합니다.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